

한덕수 국무총리, 전북 첫 방문

정현을 익산시장,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적극 건의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2단계 확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전북 방문 일정으로 3일 대한민국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민중 농식품부 차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김수홍·한병도·정운천 국회의원,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은 익산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을 둘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현재까지 123개사 78.2% 분양률(국토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22년 6월 기준)을 보이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힘 쓴 익산시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를 통해 각종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 시장은 한 총리의 이번 방문을 통해 새 정부의 전북지역 정책과제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및 거점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와 익산시

가 추진해온 그간의 현안과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정 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토지가 얼마 남지 않아 3년 뒤에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단계 확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익산이 명실상부한 세계 식품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정 시장은 "지속적으로 식품 관련 R&D기능 집적화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보석박물관이 토요일 밤 액티비티와 화려한 빛의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익산 야간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다.

‘야간 미디어 파사드 상영’

익산 보석박물관 다이노키즈월드, 한 여름밤 야간 개장

익산 보석박물관이 토요일 밤 액티비티와 화려한 빛의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익산 야간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다.

익산 보석박물관은 '익산산방문의 해'를 맞아 여름밤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이노키즈월드 실내 놀이체험시설 야간 개장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장 운영 기간은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이며 오후 8시(매료 1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기존 17시까지 운영하던 시설을 20시까지로 연장하므로 6회에서 9회까지 3시간이 연장된다.

놀이시설 종류로는 아트클라이밍, 스퀘어테이블 및 타이스 레이저데그, 인터랙티브 트램폴린 4종류이며, 어린이부터 성인 모두 체험이 가능하고, 1회

에 50분간 체험할 수 있다. 놀이 시설 마감하는 8시 이후에 즐길거리로 미디어파사드 상영, 칠선녀 광장에서 빛의 향연을 마련했다.

또한 다이노키즈월드 익스트림슬라이드타워 곳곳에 숨어있는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마이아사우라, 벨로키랍토르, 파키케팔로사우루스, 프레타노돈 등의 거대 공룡 조형물에 야간조명을 설치해 볼거리를 다양화 했다.

관객원 보석박물관장은 "8월 중 매주 토요일날은 가족들, 연인들이 보석 박물관에서 다양한 경험과 특별한 체험을 해 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고마운 여름으로 기억되는 반짝이는 여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나만의 익산명소, 영상 공모전' 개최

익산시가 다음달 25일까지 2022~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익산시의 주요 관광지를 소재로한 영상공모전을 진행한다.

시는 '여기어때? 2022~2023은 익산으로 가자!'란 주제로 익산 곳곳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활용하여 전국에 익산의 관광명소를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신선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영상 공모전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이나 팀을 구성해 CF·뮤직비디오·브이로그·단편영화·패러디영상·플래시몹 등 다양한 장르 중 참가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5분 이내의 FHD(1920x1080 pixel)이상 동영상을 제작한 후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예비심사·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작품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추후 익산시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2022~2023 익산방문의 해'홍보와 함께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익산'을 담은 영상으로 익산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선사하고 나아가 익산의 명소를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상 공모전을 통해 익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담긴 참신하고 수준 높은 우수 작품들이 많이 공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2023년 국가예산확보 기재부 총력 대응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군산항 특승화물 통관장 설치 등 건의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은 3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군산시 현안사업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시 주요 사업인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군산항 제2준설로 투기장 조성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군산항 특승화물 통관장 설치 등 기재부 단계 예산확보 및 국회단계 대응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역사업 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설명하고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서, 날로 증가하는 해상 특승화물로 인한 통관수요에 대응하고 군산항에 입항된 물량이 인천항까지 운송되는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군산항 특승화물 통관장 설치를 위한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황철호 부시장은 "8월은 정부 예산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은 3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군산시 현안사업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안) 편성의 마무리 단계로 국가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필요 사업들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청년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군산시와 전북산학융합원(원장 나석훈)은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회에 걸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제조업 연구개발업 기업체에 근무하는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특강형과 참여형으로 구분해 분야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특강형 교육은 △제조업과 미래산업의 이해, △중소기업의 4차산업 혁신 전략, △스마트공장 개념 및 주요 사례, △스마트 제조 프로세스 등 채용 기업의 산업 분야 및 직무 관련 교육이다.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참여형 교육은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교육으로 △개인 기초역량 진단 및 수립, △직무능력 향상 △문제해결법 도

출 등으로 구성하여 청년의 자기이해 및 직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은 시가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인정부터 전복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미취업 청년에게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지역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여가비, 자기개발비, 교통비 등 청년 복지에 도움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관내 기업체 및 청년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지역 소식통

군산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재유행 우려에 따라 고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예방을 위해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확대 대상자는 50대 이상의 연령층,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의 입소·종사자로,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된 시민이다. 접종은 mRNA백신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하며, 당일접종, 사전예약을 통해 군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89개소에서 가능하다.

당일접종은 SNS(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보건소 콜센터(063-454-4960)에 예약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폭염대책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군산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란 폭염특보 발효 시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야외체육활동 및 행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외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에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해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폭염기간 동안 수시로 체육시설 현장 점검에 나서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